

제12차 베트남 공산당 전당대회의 특징과 향후 정치·경제 전망

- 정재완 아시아태평양본부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jwcheong@kiep.go.kr, Tel: 044-414-1051)

차 례 ●●●

1. 베트남, 제12차 공산당 전당대회 개최
2. 차기 지도부 선출의 특징과 의미
3. 차기 지도부 선출을 통해 본 베트남의 정치경제 전망
4. 한국에 대한 시사점

주요 내용 ●●●

- ▶ 베트남에서 5년마다 개최되는 공산당 전당대회는 최대의 정치 이벤트이자 향후 5년(2016~2020년)간의 정치·외교와 경제의 향방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회의임.
 - 특히 전당대회는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한 공산당의 중요 정책노선 결정, 정책 인준, 새로운 당 규약 채택, 차기 베트남 공산당을 이끌어갈 주요 인사 선출 등을 행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임.
- ▶ 2016년 1월 말의 제12차 전당대회를 통한 최고 지도부 인선은 응웬푸쑹 현 서기장의 유임과 응웬떤중 총리의 탈락, 북부와 중부 출신 우대, 중도보수 혹은 온건파 대거 등용 등의 특징을 보임.
 - 전당대회 전후 최대 관심사였던 응웬떤중 현 총리의 서기장 선출여부는 그동안의 많은 업적과 지방 및 재계의 성원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였는데, 주요 원인으로서는 급진적인 개혁에 대한 당내 반발, 국내 기업의 상대적 부진, 개인의 강한 리더십과 연고주의에 대한 우려, 특히 트로이카 체제 붕괴에 대한 당내 견제, 대(對)중 강경노선에 대한 반대 등을 들 수 있음.
- ▶ 차기 지도부로 중도보수 혹은 온건파가 득세함에 따라 베트남 경제는 향후 5년 동안 개혁개방보다는 안정에 주력하고, 정치와 외교는 친중 성향이 강화되는 가운데 실리와 실용주의가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됨.
 - 경제분야에서 성장과 개혁개방의 속도와 강도는 약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빈부격차 해소와 국민의 생활안정에 주력하고 부정부패 척결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 ▶ 베트남이 한국의 최대 경제협력파트너 중 하나로 부상했다는 점에서 베트남의 차기 지도부 인선, 개혁개방의 방향과 속도 변화, 정치·외교 노선의 변화 등을 주시하고 적절한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베트남의 막대한 인프라 개발시장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고 의사·정책 결정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

1. 베트남, 제12차 공산당 전당대회 개최

■ 베트남은 2016년 1월 20일부터 28일까지 제12차 공산당(CPV: Communist Party of Vietnam) 전당대회 (Party Congress)를 개최함.

- 이번 전당대회는 지금까지 개최된 전당대회 중 참가 대의원이 1,510명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알려짐.
- 2016년 1월 기준 베트남 공산당원 규모는 전체 인구의 5%인 약 450만 명으로 추정됨.
- 전당대회 참석 대의원 수 추이: 2006년(제10차) 1,176명 → 2011년(제11차) 1,377명 → 2016년(제12차) 1,510명(신선영 2016, p. 1).

■ 제12차 공산당 전당대회의 주요 안건

- 공산당 중앙집행위원회(Central Committee), 당서기장을 비롯한 최고 지도부와 이들이 포함된 정치국원(Politburo), 중앙서기국, 중앙 감찰위원회 및 주임 등 선출
- 도이머이(Doi Moi, 刷新) 추진 30년 및 제11차 계획기간(2011~15년) 전당대회 결의안 이행과정 평가
- 제12차 계획기간(2016~20년)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목표와 방향 설정

■ 베트남 공산당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현 서기장의 유임과 주석총리의 교체를 포함한 정치국원 선출, 중앙집행위원 선임과 2016~20년 기간 정치·경제의 기본방침인 「정치경제보고」를 채택함.

- 특히 공산당 권력서열 1위에서 19위를 차지하는 정치국원이 내정되었는데, 서기장을 제외한 당 지도부는 조만간 국회에서 공식 선임절차를 밟게 됨.¹⁾
- 베트남 공산당은 향후 5년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6.5~7.0%, 2015년 2,019달러인 1인당 GDP를 2020년 3,750달러 달성 등의 성장목표를 상정하였으며, 현대적인 공업국가로의 진입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짐(竹内直生 2016).
- 이에 본고에서는 제12차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최고 지도부의 특징과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5년 동안(2016~20년)의 베트남 정치경제를 전망하고자 함.



1) 제11차 전당대회 이후의 현 지도부 인사 결정의 경우, 2011년 5월 22일 13대 총선 실시 후 7월 11일~8월 5일에 개최된 13대 국회 제1차 회의를 통해 이루어진 바 있음(신선영 2016, p. 4).

2. 차기 지도부 선출의 특징과 의미

가. 차기 지도부의 특징

■ 베트남 공산당은 전당대회를 통해 실질적인 최고 정책결정기관인 정치국원으로 응웬푸쑹(Nguyen Phu Trong) 현 서기장을 포함한 7명은 유임시키고 12명을 새롭게 선출함.

표 1. 베트남의 제12기(2016~20년) 공산당 정치국원(2016년 1월 전당대회 결과)

| 이름 | 성별 | 출생연도 | 출신 성/시 | 출신지역 | 현재 직책 | 비고 |
|---------------------------------|----|------|--------|------|----------------------|----|
| 응웬푸쑹(Nguyen Phu Trong) | 남 | 1944 | 하노이 | 북부 | 서기장, 제8~11기 정치국원 | 유임 |
| 쩨다이꽁(Tran Dai Quang) | 남 | 1956 | 닌빈 | 북부 | 대장,公安부장관, 제11기 정치국원 | 유임 |
| 응웬쑤언푹 (Nguyen Xuan Phuc) | 남 | 1954 | 꽁남 | 중부 | 부총리, 제11기 정치국원 | 유임 |
| 응웬티킴응안 (Nguyen Thi Kim Ngan) | 여 | 1954 | 벤제 | 남부 | 국회부의장, 제11기 정치국원 | 유임 |
| Ngo Xuan Lich | 남 | 1954 | 하남 | 북부 | 대장, 정치총국 국장 | 신임 |
| To Lam | 남 | 1957 | 흥옌 | 북부 | 상장군(총사령관),公安부 차관 | 신임 |
| Nguyen Thien Nhan | 남 | 1953 | 짜빈 | 남부 | 조국전선중앙위원회, 제11기 정치국원 | 유임 |
| Dinh The Huynh | 남 | 1953 | 남딘 | 북부 | 중앙선교위원회, 제11기 정치국원 | 유임 |
| Pham Minh Chinh | 남 | 1958 | 타잉호아 | 중부 | 중앙조직위원회 부위원장 | 신임 |
| Tong Thi Phong | 여 | 1954 | 손라 | 북부 | 국회부의장, 제11기 정치국원 | 유임 |
| Vuong Dinh Hue | 남 | 1957 | 응에안 | 중부 | 중앙경제위원회 위원장 | 신임 |
| Tran Quoc Vuong | 남 | 1953 | 타이빈 | 북부 | 당중앙사무국 국장 | 신임 |
| Pham Binh Minh | 남 | 1959 | 남딘 | 북부 | 부총리 겸 외무부장관 | 신임 |
| Truong Thi Mai | 여 | 1958 | 꽁빈 | 중부 | 국회사회문제위원회 위원장 | 신임 |
| Truong Hoa Binh | 남 | 1955 | 통안 | 남부 | 최고인민재판소 장관 | 신임 |
| Nguyen Van Binh | 남 | 1961 | 푸토 | 북부 | 베트남국가은행 총재 | 신임 |
| Vo Van Thuong | 남 | 1970 | 빈롱 | 남부 | 호치민시 상임부서기 | 신임 |
| Dinh La Thang | 남 | 1960 | 남딘 | 북부 | 교통수송부 장관 | 신임 |
| Hoang Trung Hai | 남 | 1959 | 타이빈 | 북부 | 부총리 | 신임 |

자료: 竹内直生(2016)을 토대로 재작성.

■ 제12차 전당대회의 차기 최고 지도부(트로이카 체제) 인선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과거와 달리 지역 및 성향의 안배 구도가 무너졌다는 점임.²⁾

2)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실질적인 최고지도자인 공산당중앙위원회 서기장, 국가원수인 주석, 행정과 경제 실무 최고책임자인 총리가

- 전통적으로 북부지방이 장악해온 공산당 서기장은 북부 출신인 현 서기장이 유임되었으나, 주로 남부와 중부 지방 출신이 등용되던 주석과 총리 자리를 북부와 중부 지방 출신이 차지함.
 - o 지역안배는 2006년 이후 남부 출신이 주석과 총리 자리를 모두 차지하면서 와해되기 시작하였음.
 - o 정치국원 전체로 봐서도 북부 출신이 11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남부와 중부는 각각 4명에 불과함(표 1 참고).
- 정치성향을 살펴보면, 최고지도부 3인이 모두 중도보수 혹은 온건파로 분류되고 있어 개혁파는 탈락된 것으로 보임.
 - o 응웬푸쑹 현 서기장은 사회주의 이론가이자 대표적인 중도보수(혹은 보수)로 분류됨.
 - o 주석으로 내정된 쩌다이꽁(Tran Dai Quang)은 공안부 장관 출신이자 현역군인으로, 역시 중도보수파로 분류됨.
 - o 반면 총리로 내정된 응웬쑤언푹(Nguyen Xuan Phuc) 현 부총리는 응웬떤중(Nguyen Tan Dung) 현 총리와 그동안 적극적인 개혁 작업을 추진해왔으나, 2012년경 개혁그룹에서 이탈해 온건파로 분류되고 있음(富山篤 2016).

표 2. 베트남의 역대 최고지도부(트로이카) 구성 내역(2016년 2월 현재)

| 선출시기 | 공산당 서기장 | | | 대통령(주석) | | | 총리 | | |
|----------|---------|----|----------------|---------|----|----|-------|----|-------|
| | 이름 | 출신 | 성향 | 이름 | 출신 | 성향 | 이름 | 출신 | 성향 |
| 1991~92년 | 도무오이 | 북부 | 중도 | 레득아잉 | 중부 | 보수 | 보반키엣 | 남부 | 개혁 |
| 1997년 | 레카푼 | 북부 | 보수 | 쩌득루옹 | 중부 | 중도 | 판반카이 | 남부 | 개혁 |
| 2001년 | 농득마잉 | 북부 | 개혁 | 쩌득루옹 | 중부 | 중도 | 판반카이 | 남부 | 개혁 |
| 2006년 | 농득마잉 | 북부 | 개혁 | 응웬민찌엣 | 남부 | 개혁 | 응웬떤중 | 남부 | 개혁 |
| 2011년 | 응웬푸쑹 | 북부 | 사회주의 이론가(중도보수) | 쯔엥떤상 | 남부 | 개혁 | 응웬떤중 | 남부 | 개혁 |
| 2016년 | 응웬푸쑹 | 북부 | 사회주의 이론가(중도보수) | 쩌다이꽁 | 북부 | 중도 | 응웬쑤언푹 | 중부 | 개혁→온건 |

주: 제12기 주석과 총리는 새로 구성되는 차기 국회(2016년 5월 총선과 7월 개회)에서 정식으로 임명 절차를 거치게 됨.
자료: 정재완(2013, p. 7) 수정·보완.

■ 응웬푸쑹 서기장의 경우 재선 제한연령(65세)을 넘어선 7세인데도 불구하고 예외로 인정받은 것도 특이사항임.

- 이와 관련, 유임이 결정된 현 서기장은 1~2년 이내에 임기를 만료하지 않고 퇴임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는 등, 이번 차기 지도부 선출은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西濱徹 2016, p. 1).

■ 권력서열 4위에 해당하는 국회의장에는 현 국회부의장인 응웬티킴응안(Nguyen Thi Kim Ngan)이 지명되었는데, 이는 베트남 최초의 여성 국회의장 탄생을 의미함.³⁾

분업한 트로이카 체제를 채택하고 있음.

3) 지역안배 측면에서 보면, 트로이카에서 배제된 남부 출신인 응웬티킴응안이 당 권력서열 4위인 국회의장에 선임되면서 나름대로

■ 이외에도 제12차 전당대회는 정치국원 확대(15 → 19명), 중앙집행위원 확대(150 → 200명), 경제관료 3명(중앙은행 총재, 경제담당 부총리, 수송부장관)의 정치국원 선임 등도 특이사항으로 들 수 있음(Oxford Analytica Daily Brief 2016).

- 다만 중앙집행위원 중 20명은 투표권이 없는 임시대체위원(alternates)임.

나. 차기 최고 지도부 선출의 의미

■ 당초 제12차 전당대회는 ‘사상 초유의 권력투쟁(unprecedented internal power struggle)’으로 비춰졌고, 실제 투쟁은 응웬떤중 현 총리가 사퇴의사를 표명한 전당대회 전반기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 전당대회 개최 직전까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확대, 경제성장세 회복 등 최근 10여 년간 베트남의 경제성장과 개혁·개방을 주도해온 응웬떤중 현 총리가 중국과 같이 공산당서기장은 물론 국가주석 자리도 베트남 역사상 최초로 겸직할 수 있다고 예측될 정도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바 있음(富山篤 2016).

- 특히 베트남은 TPP 가입으로 개혁·개방 가속, 경제 구조조정 본격화, 미국과의 관계 개선과 중국의존도 감소 등의 효과를 누릴 뿐 아니라, Petri *et al.*(2013)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의하면 TPP 회원국 중 최대 수혜국(GDP 성장률 및 GDP 대비 수출 증가)으로 평가받기도 함.

표 3. 베트남의 FTA 추진 동향(2016년 2월 현재)

| | 발효중 | 서명/타결 | 협상중 | 논의/구상중 |
|-------|--|---------------|--|------------------------|
| 베트남 | 한국, 일본, 칠레 | TPP, EU, EAEU | EFTA(2012. 5~) 이스라엘(2015. 12, 선언) | 우크라이나, 스리랑카, 터키, 멕시코 등 |
| ASEAN | 아세안경제공동체(AEC),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뉴질랜드 | | RCEP(2013. 5~), 홍콩 (2014. 7~), EU(중단) | |

주: EAEU(유라시아경제공동체: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벨라루스),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자료: 각종 보도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1. 베트남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추이(2001~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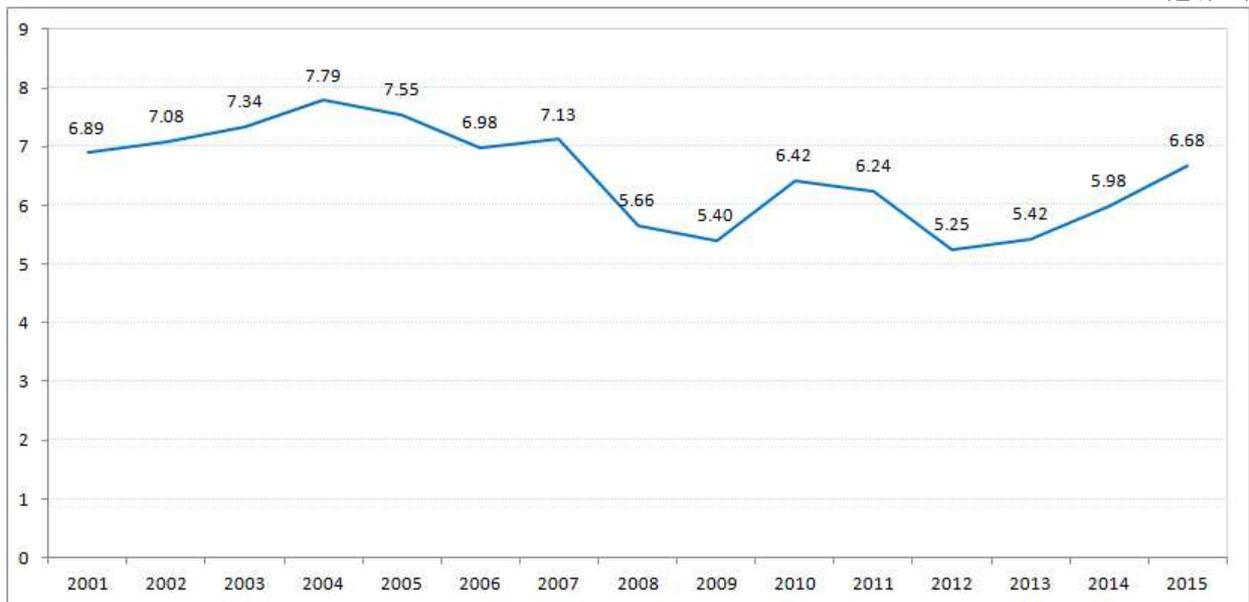
(단위: 억 달러)



주: 등록자본금에는 재투자도 포함.
자료: 베트남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작성.

그림 2. 베트남의 GDP 성장률 추이(2001~15년)

(단위: %)



자료: 베트남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작성.

■ 현 서기장의 유임과 응웬떤중 총리의 퇴진은 주로 다음과 같은 과정과 배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변화의 조짐이 보인 것은 응웬푸쑹 서기장이 2015년 7월 베트남 서기장으로서는 최초로 미국을 방문해

남중국해 문제, TPP 협상 등에서 미국의 협력을 얻어내는 성과를 올리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임(富山篤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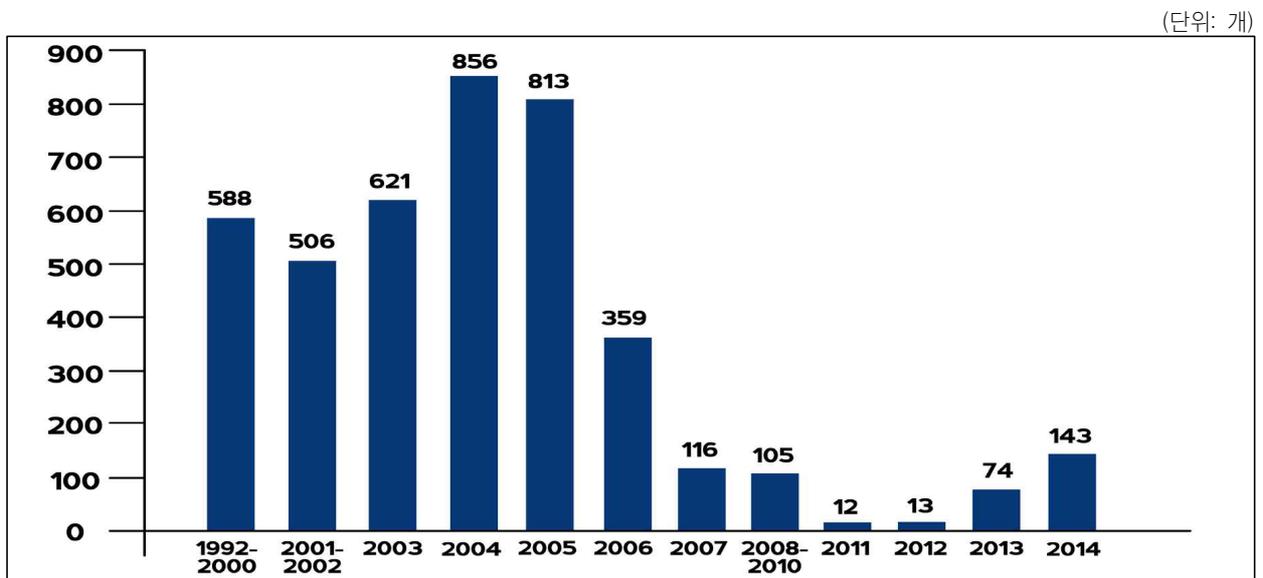
- 응웬판중 총리의 성급한 개혁이나 기업개혁 부진에 대해 당 지도부가 강한 반발을 보여왔다는 점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임.
- 그동안 베트남이 TPP 가입, EU 및 한국과의 FTA 체결 등 자유무역과 對중국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 내 반발이 있었으며, 특히 국내산업 육성 부문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데다 외자기업이 시장을 장악해 자국기업이 크게 위축되었다고 공산당 내부에서 불만이 많았음(富山篤 2016).
- 국유기업 개혁 부문에서도 응웬판중 총리는 10년의 재임기간(2006~15) 동안 전임 총리에 비해 많이 부진한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됨(그림 4 참고).

그림 3. 총수출과 총수출에서 국내기업 및 외자기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추이



자료: 베트남 통계청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

그림 4. 베트남의 국유기업 중 민영화 추진 사례 추이(1992~2014년)



자료: Markus, Nguyen, and Nguyen(2015), p. 23.

- 게다가 응웬떤중 총리의 강한 리더십과 연고주의에 대해 공산당 내외부에서 반발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짐.
- 총리의 성공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영향력 증대를 경계하는 당내 보수파와 알력이 존재했고, 특히 응웬떤중 총리와 같이 개인의 힘에 의지하는 정치는 트로이카 체제의 균형유지 차원에서 용납하지 않는다는 공산당의 전통도 작용한 것으로 보임.
- 서사군도(파라셀 군도)를 둘러싸고 중국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응웬떤중 총리가 중국에 대해 강경노선을 보이는 것에 대해 당내 온건파를 중심으로 중국과의 균형을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득세했다는 견해도 있음(西濱徹 2016, p. 2).
- 응웬떤중 총리는 그동안 퇴진하겠다고거나 또는 서기장에 도전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채 2016년 1월 25일 최고 지도부의 자격요건인 중앙집행위원 후보에서 제외되면서 서기장을 둘러싼 권력투쟁이 막을 내린 것으로 알려짐.

3. 차기 지도부 선출을 통해 본 베트남의 정치·경제 전망

■ 베트남이 공산당 일당체제의 사회주의 국가라는 점에서 5년마다 개최되는 공산당 전당대회는 최대의 정치 이벤트이자 향후 5년(2016~20년)간의 정치·외교와 경제의 향방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회의임.

- 베트남 「헌법」(제4조 1항, 2013)은 공산당이 노동자계급과 베트남 민족의 선봉대로서 국가와 사회를 영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회주의 체제인 베트남의 실질적인 모든 권력은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5년마다 소집되는 전당대회는 당의 주요 정책노선 결정, 정책 인준, 새로운 당 규약 채택, 베트남 공산당을 이끌어갈 차기 주요 인사 선출 등 국정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행사임.⁴⁾

■ 이번 인선으로 베트남의 최고 지도부(공산당서기장, 주석, 총리)는 모두 중도보수 혹은 온건파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향후 베트남의 정치·외교와 경제정책의 향방이 개혁추구보다는 안정에 주력할 것임을 의미함.

- 전체 중앙집행위원의 14%인 28명이 군 및 경찰 간부라는 점은 법과 명령 등이 보수화될 것을 시사하는 단적인 예이며, 특히 19명의 정치국원 중 강경파(hardliner)로 알려진 8명이 이를 지원할 것으로 보임(Oxford Analytica Daily Brief 2016).
- 실제로 전당대회 이후 최초로 13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개최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제12차 전당대회를 통해 확인된 중앙집행위원회의 인적구성에 맞춰 향후 5년 동안의 국가 중대사, 특히 사회경제문제,

4) 베트남의 공산당 전당대회는 제1회가 1935년 마카오에서 개최될 정도로 오래되었으나, 식민 지배, 제2차 세계대전, 인도차이나 전쟁 등으로 불규칙적이다가 1986년 제6차부터 매 5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음.

국방 및 안보, 외교, 중기 자금조달 등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짐(*VietNamNews* 2016).

- *VietNamNews*(2016)에 따르면, 베트남은 향후 5년 동안 현대적인 산업화국가(modernity-oriented industrialized country)로 탈바꿈하기 위해 성장모델 개혁, 사회 평등 및 진전, 기후변화 대응, 자연자원 관리, 환경보호, 국방 및 안보, 세계로의 통합 등과 함께 경제의 구조조정과 거시경제 안정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짐.

■ 베트남은 향후에도 경제성장을 추구하되 빈부격차 해소나 국민의 생활안정에 주력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해온 부정부패 척결을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공산당은 전당대회를 통해 도이머이 추진 30년과 2011~15년 동안의 개혁 성과를 평가하면서 향후 5년 동안(2016~20년) 사회기반시설 구축과 주택 건설 등을 통해 국민생활의 질을 개선하고자 다짐함.
- 또한 공산당의 전당대회 결과보고나 응웬푸쑹 서기장의 연임 인사말의 핵심은 부정부패 척결이었음.
- 베트남은 외국인투자 유치 및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될 정도로 부정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 따르면, 베트남은 2015년 전체 167개 국가 중 112위를 차지해 경쟁국인 인도네시아(88위)와 필리핀(95위) 등에 비해서도 부정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Transparency International* 2015, p. 7).
- 주석과 총리 내정자 모두 공안부 장관과 부패척결위원회 위원장 출신이라는 점도 향후 베트남에서 부정부패 척결이 강화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음.
- 특히 쩌다이퐁 주석 내정자는 많은 분석가들에 의해 차기 최고지도자(서기장) 후보로 평가받고 있음.

■ 베트남은 대체적으로 개혁·개방 정책의 기초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속도나 강도는 응웬떤중 총리 시절보다 다소 지연되거나 약화될 것으로 전망됨.

-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개념정립자인 응웬푸쑹 현 서기장은 그동안 응웬떤중 총리의 적극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지지하였음.
- 그동안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당내 반발을 받아온 국유기업 개혁은 추진동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됨.
- TPP, RCEP, EU 등 주요 지역 및 국가와의 FTA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추가적인 FTA는 당분간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원재료가 부족하고 소재·부품 산업이 발달하지 못한 베트남은 최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표 4 참고).
- 다만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베트남으로서는 최근 빠르게 심화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경제의 의존도를 낮출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표 4. 베트남의 주요 수출입 상대국의 비중 추이(2000~15년)

(단위: %)

| 수출 | | | | | 수입 | | | | |
|---------------|-------|-------|-------|----------------------------|---------------|-------|-------|-------|---------------|
| 국가 | 2000년 | 2010년 | 2015년 | 2015년 증가율 ¹⁾ | 국가 | 2000년 | 2010년 | 2015년 | 2015년 증가율* |
| 미국 | 5.1 | 20.4 | 20.7 | 16.9 | 중국 | 9.0 | 24.0 | 29.9 | 13.3 |
| 중국 | 10.6 | 10.5 | 10.6 | 14.8 | 한국 | 11.2 | 11.7 | 16.7 | 26.9 |
| 일본 | 17.8 | 11.1 | 8.7 | -3.8 | 일본 | 14.7 | 10.8 | 8.7 | 11.1 |
| 한국 | 2.4 | 4.4 | 5.5 | 25.0 | 대만 | 12.0 | 8.4 | 6.6 | -0.8 |
| 홍콩 | 2.2 | 2.1 | 4.3 | 33.9 | 태국 | 5.2 | 6.7 | 5.0 | 16.8 |
| 총계 (기타 포함) | 100.0 | 100.0 | 100.0 | 7.9 | 총계 (기타 포함) | 100.0 | 100.0 | 100.0 | 12.0 |

주: * 2014년 대비 2015년 증가율을 의미.
자료: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작성.

■ 외교 분야는 베트남 최고 지도부의 중도보수와 온건파 독점으로 친중 성향이 강화되는 가운데 전통적인 실리와 실용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對중 강경노선을 견지한 응웬떤중 총리의 최고 지도부 탈락에는 중국의 입김도 작용했다는 후문임.
- 베트남 외교의 핵심은 과거의 적인 미국은 물론 이웃 국가인 중국과의 원만한 협력관계 수립인바, 향후 베트남 외교는 이들 양국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추구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임.

4. 한국에 대한 시사점

■ 전당대회를 통한 차기 지도부 개편은 협력 관계가 심화·확대되고 있는 한베트남 관계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베트남이 한국의 최대 경제협력 파트너 중 하나라는 점에서 향후 베트남의 경제 개혁 속도와 방향 변화, 정치외교 노선 변화 등에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베트남은 최근 한국의 3대 수출시장, 3대 투자지역, 최대 공적개발원조(ODA) 지원대상국이자 주요 해외건설 시장 등으로 부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TPP 협상 타결(2015년 10월), 한·베트남 FTA 발효(2015년 12월), 아세안경제공동체(AEC) 발족(2015년 말) 등으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 베트남 입장에서 보면, 2015년 말 현재 한국은 최대 투자국(누적 기준)이고, 4대 수출대상국이자 2대 수입대상국일 정도로 중요한 국가임.

■ 경제 면에서는 해외에서 베트남을 보는 시각에 주의함과 동시에 제12차 계획기간(2016~20년) 중점 개발 분야에 적극 참여하고,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인 양국간의 외교 관계도 심화·확대할 필요가 있음.

- 차기 지도부를 둘러싼 인사의 복잡한 양상이나 중도보수파의 득세는 해외에서 베트남을 보는 시각에 영향을 미쳐 외자 유입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함.
- 일례로 응웬판중 총리 시절 진행해왔던 자유무역 추진이나 외자기업 도입 등의 의지나 노력이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외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자의 자금유입이 줄어들고 재외 베트남교포 (Viet Kieu)들의 본국 송금도 감소하여, 중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의 저하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데 주의해야 함.
- 베트남은 상당기간 빈부격차 해소와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구축과 주택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분야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 외교·안보 부문에서는 기존 베트남의 한반도 비핵화 및 동북아 평화안정에 대한 지지 입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베트남 외교·안보 전략대화’와 같은 양자간 대화 채널을 정례화할 필요도 있음(이재호 2016, p. 2).

■ 특히 이번에 확정된 최고 지도부뿐만 아니라 정치국원, 중앙집행위원회 등은 베트남의 최고 의사·정책 결정기구라는 점에서 이들을 양국간 협력관계 확대 및 심화에 활용할 전략 수립이 필요함.⁵⁾

- 한국은 최근 ‘한·베트남 금융협력 조정위원회’를 통해 베트남의 막대한 인프라 개발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주요 국책사업이나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의 정책·의사 결정 메커니즘을 잘 파악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한·베트남 금융협력 조정위원회’는 2014년 10월 응웬푸종 서기장의 한국 방문 당시 체결된 120억 달러 규모의 금융협력 양해각서(MOU)의 이행을 위해 구성되었으며, 2015년 6월 하노이에서 1차 회의가 개최됨(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5. 6. 20).
- 한국의 주요 관심표명 프로젝트는 고속철도, 하노이와 호치민 도시철도, 기존철도 개량 등 교통분야와 발전소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분야임.
- 2010년 일본과 베트남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다가 베트남 국회의 반대로 무산된 하노이-호치민 고속철도 프로젝트(1,570km) 실패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함.
- 실패의 원인으로는 경제적 타당성 부족과 막대한 부채(560억 달러) 증가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베트남 행정부만을 상대로 한 로비, 공산당과 국회의 반대 의견 경시 등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짐. KIEP

5) 중앙집행위원회는 전당대회 기간 전후 주요 결정사항을 집행하고 당의 활동을 지도하는 기관이고, 정치국은 최고 정책결정기관임.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 2015. 「제1차 한-베 금융협력 조정위 개최 결과」. 보도자료 (6월 20일)
- 신선영. 2016. 「베트남 당 서기장의 연임 확정과 베트남 정세 전망」.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35186&ARTICLE_SE=20305(검색일: 2016. 2. 15).
- 이재호. 2016. 「베트남 12차 전당대회 개최와 시사점」. 『2016년 지역연구 공동동향세미나(제3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월 19일)
- 정재완. 2013. 「베트남 이해」 (삼성전자 강의자료)
「베트남 헌법(2013년 개정, Final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Vietnam Adopted by the National Assembly 28 November 2013)」.
- 竹内直生. 2016. 「チョン書記長が留任, ズン首相は退任へ(ベトナム)」. 『通商弘報』. (2월 1일)
- 富山篤. 2016. 「베트남 당書記長가留任 後任本命의ズン首相は引退」. 『日本經濟新聞』. (1월 27日)
- 西濱徹. 2016. 「好調が続くベトナム経済も, 政治動向には要注意: 次期指導部は穏健派が主流に, 改革スピードの減速に懸念」. *Asia Trends*. 第一生命經濟研究所. (1월28日)
- 베트남통계청. <http://www.gso.gov.vn>.
- Markus, D Taussig, Nguyen Chi Hieu, and Nguyen Thuy Linh. 2015. “FROM CONTROL TO MARKET: Time for Real SOE Reform in Vietnam?”
- Oxford Analytica Daily Brief. 2016. “Vietnam’s government will be more conservative.” (February 3)
- “NA Standing Committee convenes 46th session.” 2016. *VietNamNews*. (March 7)
- Peter A. Petri, Michael G. Plummer and Fan Zhai. 2013. “ADDING JAPAN AND KOREA TO THE TPP.” <http://asiapacifictrade.org/wp-content/uploads/2013/05/Adding-Japan-and-Korea-to-TPP.pdf>(검색일: 2016. 3. 16).
-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15.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5*.